

4父子가 동시에 전남대 다니는 유영렬씨와 아들 대성·종수·창수씨

호남대 '한·중 윤리학 국제학술대회'

"지방대 인재 잘 키워야 지역사회도 발전"

가족 장학금 받고… 같이 등교하고…

캠퍼스서 아버지 만나 고민 해결도

"지방대학에서 배운 것을 지방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방대학이 잘 될수록 지방자치도, 지역발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 아닌가요?"

전남대에 함께 다니는 아버지와 아들 셋이 "지방대학 인재들이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창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에 근무하는 유령렬(53)씨와 그의 아들 대성(28·영문학과)·종수(21·중어중문학과)·창수(21·산림자원학부)씨 4부자(父子)다.

"처음부터 함께 한 대학에 다니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들들이 서울보다 광주에서 살고자 하는 의욕이 강했기에 지역 명문대학에 입학하다 보니 다 같이 전남대에 들어오게 됐어요. 학교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왼쪽부터 쌍둥이인 종수·창수씨, 아버지 유영렬씨, 큰 아들 대성씨.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가족 중 가장 먼저 전남대에 입학한 사람은 아버지 유씨다. 지난 1978년에 입학해 석사과정 후 현재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경제학)을 밟고 있다. 그 이후 차례로 큰아들 대성씨와 일란

성 쌍둥이인 종수·창수씨 형제가 입학했다. 종수·창수씨는 학군단에서 군사교육을 같이 받고 있는 예비 장교다.

가족 넷이 한 학교에 다니다 보니 실보다 득이

많다. 3명 이상 한 가족이 전남대에 동시에 다닐 경우 가족 장학금이 주어져 한 명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닌다. 또 등교할 때도 차량 한대를 이용한다.

집에서 뜻다한 고민거리를 아버지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다. 캠퍼스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즐거움이다.

"아버지를 학교에서 마주치면 교수님인 척하며 친근감 있게 대해요. 그러면 주위 친구들이 '교수님이랑 어쩜 그렇게 친하나'며 굉장히 부러워하죠. 하하하"(큰아들 대성씨)

부인 고광순씨도 뒤늦게 대학에 입학, 지난해 동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을 정도로 가족 모두가 공부에 열심이다. 시험기간에는 집안 전체가 도서관 분위기다.

아들 셋은 졸업 후 광주지역에서 급용종사자나 교사·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목표다.

창수군은 "취업난이라고들 하지만 굳이 서울로 가는 것보다 광주에서도 노력만 하면 충분히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방대학 인재의 잠재력을 살려서 나만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와 인문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한·중 윤리학 국제학술대회'가 '동양윤리와 문화'를 주제로 지난 26일 호남대 광신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개막됐다. <호남대 제공>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소록도병원 봉사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수관) 학생들은 최근 36명씩 팀을 이뤄 두 차례(2박3일 일정)에 걸쳐 국립소록도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조선대 제공>

라이온스 355-B3 전남동부지구 현혈버스 기증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 전남동부지구(총재 양재원)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원장 오정현)에 현혈 버스를 기증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광양 청우회 서천면 쓰레기 수거



광양시 1973년생 모임인 청우회와 가족 40여명은 최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서천면 일대에서 생활쓰레기 3t을 수거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정인옥씨 손자 문제민(전남대 의과대학생)군 김종신(전남대병원)군 김기희(경영실)·이정숙씨 장녀 은수(전남대병원)양=31일(토) 낮 12시10분 서구 능성동 광주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 강좌=8월21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대 호암기념 도서관 5층 양택, 음택, 수택, 나경·입향론, 비결록령당,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상 제시 (책자무료제공). 011-609-8117.

062-670-2161.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혁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봄주기 등(실버에 관한).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이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062-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

비·설비원 모집=광주시내 아파트에 근무할 60~65세 경비원 수시로 모집. 062-236-0032.

▲경경자 국악지도원 모집=국악지도원 어린이 국악지도사 모집. 011-617-7713.

▲우리문화 사랑회 회원 모집=전통문화를 애호하는 20세 이상 일반시민. 매월 24일 월례회 및 문화답사, 학술발표회 등 예정. 016-686-6491.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화교육(한글과정), 초등·중

등 과정, 경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아학 교사·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 드는 선생님, 097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스키동호회 설천클럽 회원 모집=광주에 거주하는 30~40대 남녀. 011-635-1400.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모집=장구, 징, 꽹과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악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부음

▲정경조씨 별세 병언(북부세무서)·병민(광주교도소)·병육·민순·민희씨 부친=발인 29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모집=장구, 징, 꽹과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악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서기복씨 별세 제승·현승·현상=발인 28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슬로시티' 증도 마라톤대회 성료



제55회 호남예술제 증정식이 27일 오전

광주일보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송일준(동아여중 교장), 윤영월(광주예술고 교장), 신명원(송원초등학교 교장)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산단 주민 자녀에 장학금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산단 주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회장 강송구·GS칼텍스 전무)는 27일 오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 2층 상황실에서 대학생 25명과 고교생 11명 등 총 36명에게 3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의 모임인 공장장협의회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하나로 1989년부터 기금을 출연해 '여수산단장



학회'를 설립, 지난 1990년부터 21년 동안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산단 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중·고·대학생 1792명에게 13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서로 존중받고 어울리는 방법 배워요"

광주여대 다문화가정 자녀 '행복나눔 캠프'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정원)가 26~27일 1박2일 동안 지역사회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행복나눔 캠프'를 개최했다.

'미술로 만드는 하나 되는 세상'이란 부제로 실시되는 이번 캠프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로가 존중받고 어울려 함께 지내는 방법을 배우고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 삶의 가치와 긍정심을 심어줬다.

광주여대 미술치료센터에서 진행된 캠프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 30명이 참가했고, 치료사 및 치료사 보조, 일반봉사자 등 3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교수, 의료팀 등이 도우미로 나섰다.



캠프에서는 신체분리기, 나만의 가면, 만다라 만들기, 허자작업, 집단난화 같은 다양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캠프를 기획한 오승진 교수(미술치료학과)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에게 예술활동과 심리치료를 실시해 한국인으로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모두 즐거워했다"고 전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미음까지 편안한 - 금호 장례식장		넓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 정성껏 살기겠습니다.	
故 김영선 님(남/72세) 구/부: 김영선 / 배지호 女/母: 강현태 한수·박미진		故 성현임 님(여/86세) 구/부: 송현희 / 이예숙 월일 / 배민숙 원숙 / 김은숙 인숙 / 박성숙 서원희 / 이혜진	
주/구: 서정근 님(남/59세) 구/부: 서정근 / 김숙영 정숙	호수: 201호 월일: 7월 28일 장지: 영락공원	호수: 402호 월일: 7월 29일 장지: 영락공원	
삼가 故人의 眞福을 빕니다. ☎ 062)227-4000			

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이상준·상일 씨 모친상

김희동·유자윤·김희현 씨 빙모상

발인: 29일(목) 08시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062-4407

▲신현식 씨 모친상 빙모상

발인: 28일(수) 08시

장지: 고흥군 침입면 산성

연락처: 062-4412

▲강성봉·성경 씨 부친상 배용환씨 빙부상

발인: 29일(목) 08시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062-4455

발인: 29일(목) 08시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062-4407

▲신현식 씨 모친상 빙모상

발인: 28일(수) 08시

장지: 고흥군 침입면 산성

연락처: 062-4412

▲강성봉·성경 씨 부친상 배용환씨 빙부상

발인: 29일(목) 08시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062-4455

그린장례